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202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김 명 희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지도교수 주 동 범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김 명 희

김명희의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19일

위 원 장 교육학박사 천 성 문

위 원 교육학박사 이 현 철

위 원 교육학박사 강 버 들

위 원 교육학박사 이 원 석

위 원 철 학 박 사 주 동 범



목 차

Abstract	vi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8
1. 진로준비행동	8
2. 전공만족도	12
3. 셀프리더십	16
4. 간호전문직관	20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4
6. 선행연구 고찰	28
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28
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29
다.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31
라.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32
III. 연구방법	34
1. 연구모형	34

2. 연구대상	35
3. 측정도구	37
가. 진로준비행동	37
나. 전공만족도	41
다. 셀프리더십	44
라. 간호전문직관	49
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3
4.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방법	58
IV. 연구결과	60
1. 관측변수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검증 및 상관분석	60
가. 변인의 기술통계	60
나. 변인 간 상관관계	61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64
가.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64
나. 초기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65
다.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67
라. 수정된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68
3.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	70
가.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70
나.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	71
4. 수정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	74
가. 수정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74
나.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	75
5. 최종 구조회귀모형에서 직·간접효과 검증	77

V. 논의 및 결론	79
1. 논의	79
2. 결론 및 제언	83
참고문헌	87
부 록	100
1. 진로준비행동 척도	100
2. 전공만족도 척도	104
3. 셀프리더십 척도	105
4. 간호전문직관 척도	107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109



표 목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6
<표 III-2>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 문항구성	38
<표 III-3>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39
<표 III-4>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40
<표 III-5> 전공만족도 측정도구 문항구성	41
<표 III-6>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42
<표 III-7>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43
<표 III-8>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문항구성	45
<표 III-9>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46
<표 III-10>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2차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47
<표 III-11>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48
<표 III-12>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문항구성	49
<표 III-13>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51
<표 III-14>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52
<표 III-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문항구성	54
<표 III-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56
<표 III-1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57
<표 IV-1> 변인의 기술통계	61
<표 IV-2> 변인 간 상관관계	63
<표 IV-3>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65
<표 IV-4> 초기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66
<표 IV-5>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68

<표 IV-6> 수정된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69
<표 IV-7>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지수	71
<표 IV-8>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72
<표 IV-9>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74
<표 IV-10>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	76
<표 IV-11>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효과 분해표	78



그림 목차

[그림 Ⅲ-1] 연구모형	34
[그림 Ⅲ-2] 진로준비행동 3요인 모형	40
[그림 Ⅲ-3] 전공만족도 2요인 모형	43
[그림 Ⅲ-4] 셀프리더십 3요인 모형	48
[그림 Ⅲ-5] 간호전문직관 3요인 모형	52
[그림 Ⅲ-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요인 모형	57
[그림 Ⅳ-1] 초기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67
[그림 Ⅳ-2] 수정된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70
[그림 Ⅳ-3]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	73
[그림 Ⅳ-4]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77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yong Hui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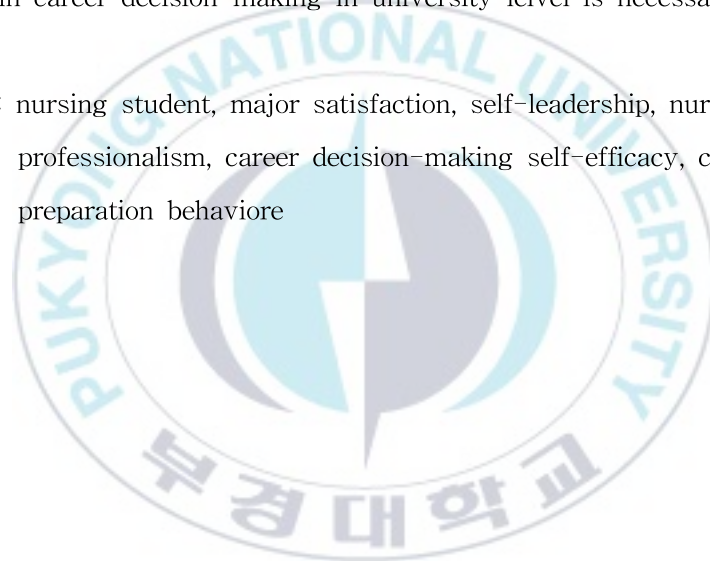
Department of Fisheries and Marin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of variables through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tudy can help how to use curriculum for nursing students. And it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nursing job duty. The study designed an empirical research model by the review of previous research and the data collected from 480 nursing students in 4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earch model was tested by the path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Firstly, the study showed that major satisfaction influenced nursing professionalism positively, but major satisfaction did not influ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ly, it represented that self-leadership influence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ositively, but self-leadership did not influ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ly, it showe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fluenc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ositively, but nursing professionalism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nally, it represented that there was the perfect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approaches of personal and university level are needed for improvi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In particular, the result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s a perfect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uggests that the systematic education for improving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in university level is necessary.

Key words: nursing student, major satisfaction, self-leadership,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메르스 사태 때나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으로 전 국가적인 의료체계 확립의 필요가 요구될 때마다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표출된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간호사의 적정 비율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임상활동 간호사수는 6.80명으로 OECD 평균(8.88명)에 비해 적고, 면허 보유 간호사 대비 실제 임상활동 간호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장욱 · 한승진, 2018).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용 간호사의 비율은 극히 적은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신규 간호학과를 증설하여 입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20년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대학과정(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정원은 9,917명이고, 전문대학과정의 간호학과 정원은 10,845명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간호학과에의 증가로 입학생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갑작스럽게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는 경

우가 많다(정영미, 2018). 간호학은 학문의 개념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라고 하는 실천적 과제를 함께 안고 있기에 간호학이라는 전공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임상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결국 이직이나 중도 탈락을 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 무엇보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많다. 정점숙 외(2014), 오은진과 공정현(2017), 이유진과 김운수(2017), 정영미(2018) 등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의 진로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들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문미영과 황선영(2016)은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현주(2017)는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임정혜(2014)는 학습동기와 자아탄력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황은희와 김건희(2017)는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련 변인들의 차이가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관련 변인들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전략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이해와 향후 임상현장에서의 직무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간호대학생이 향후 임상현장에 부딪힐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내적인 역량과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온 것으로 자기 관리의 확대에 내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 주는 자율적인 힘인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윤미진 · 권영채, 2018). 셀프리더십은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김두리 외, 2020)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해서는 창의성 및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다른 변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권진희와 최봉실(2020)은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셀프리더십의 함양을 강조하였다. 김자선(2019)은 셀프리더십이, 장태정(2014)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문희와 이미련(2019)은 셀프리더십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서가원과 문혜경(2018)은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셀프리더십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이나 메타인지능력 등의 변인에 대한 분석(김두리 외, 2020; 윤미진 · 권영채, 2018; 왕희정 외, 2016; 이선영 외, 2019)이 많은 편이다.

간호대학생은 전공의 선택이 곧 진로에 대한 확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선택은 단순히 학과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적성, 흥미, 가치 등의 전반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진로준비행동이다.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하는 행동이나 혹은 진로결정 이후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뜻한다(장태정 · 문미경, 201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송효숙과 임소희(2017), 채민정과 정효주(2018)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의(2019)는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

히 문지영(2019)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경하(2018b)와 안민권(2019)은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영옥과 오향련(2019)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간호전문직관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다른 개인 변인에 개별적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 그리고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전체적 구조를 살펴보고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를 준비하도록 하는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향후 간호직무를 수행할 때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직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정립을 위해 간호대학생으로 재학 중일 때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은 효율적인 간호직 수행과 이에 대한 진로준비,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간호직무를 수행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각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한 단편적 영향 관계 규명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직무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가.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과 김계현(1995)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 16문항, 9점 척도를 이명숙(2003)이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활성화와 학내 진로 관련 상담센터들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하여 4점 척도로 수정·보완한 것을 5점 척도로 재구성한 권용준(2018)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나.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학과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하혜숙(1999)이 우리의 문화에 맞게 수정 개발한 34개 문항의 학과(학부)만족 도구 중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정명숙(2014)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다.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를 번안하고, 이를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상으로 타당화한 신용국(2009)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라.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윤은자, 권영미와 안옥희(2005)가 개발하여 정수현(2007)이 사용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29문항에서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18문항을 추출한 김명희(2008)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5개의 하위척도별로 5문항씩 선정하여 구성된 총 25문항의 단축형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Betz & Voyten, 1997)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정리한 윤지온(2018)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적, 태도적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사항을 실천하는 행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증가하는 일, 실제 면접에 대비한 모의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 차원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이므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인 자신의 탐색과 경험을 토대로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장태정·문미경, 2016).

진로준비행동은 Brown과 Health(1984)의 통합적 인지-행동 모델을 배경으로 하여 김봉환과 김계현(1997)에 의해 도출된 개념으로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관련 연구 분야에서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행동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하였다(김경하, 2018a; 장명희 외, 2020). 이런 측면에서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 등으로 정의하였다. 학자

들마다 구체적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차원을 반영하되 실제 수행하는 행동이고 그 행동은 진로라고 하는 목표를 위한 준비행동 및 실천행위를 포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권용준, 2018).

진로준비행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매우 중요한 진로준비행동이 된다. 둘째,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셋째,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과정으로,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 활동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권용준, 2018; 김봉환, 1997; 황완희·배경의, 2017).

진로준비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진로를 준비하는 개인에게 진로결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지기 위해서이다. 진로준비의 충분성 여부는 취업이라는 현실을 통한 사회생활 적응에의 결과로 귀착된다는 점에 중요성이 강조된다(송효숙·임소희, 2017). 문인오와 이경완(2010)에 따르면 다른 학과에 비하여 간호학과의 초기 취업은 높으나 그에 비해 유지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간호대학생 시기에 간호사로써의 진로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정도의 여부가 간호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으로써 앞으로의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이승구·이제경, 2008).

간호대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직무 이해뿐만 아니라 간호직에 대한 수행 능력 향상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간호에 대한 가치관 등을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나 진로에 대한 결정이 거의 되어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실제적인 진

로준비를 위한 탐색 행위는 부족하여 결국 진로준비행동도 충분치 못한 현실이다(박희숙 외, 2019). 진로준비행동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선행변인으로 대학생들이 함양시켜야 할 중요한 변인임에도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학과 학생에 비해 진로가 결정되어 높은 취업률을 보여 진로고민이 깊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진로준비를 위한 능력 함양이 어려울 수 있다(장명희 외, 2020).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여성 간호대학생과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다. 우선적으로는 여학생의 수가 월등한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대하는 직무 현장에도 여성 간호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학과 전공 교수의 경우도 남자 교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간호 직무 현장에서 리더는 여성이고 그러한 현실의 조직의 일원이 되어 간호사직을 수행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여성 중심의 환경은 남자 간호 대학생에게 심리적 갈등을 겪게 할 수 있다(이영옥 · 오향련, 2019).

무엇보다 남자 간호대학생은 재학중이거나 졸업 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 후에도 예비군 훈련 등과 같은 군사 훈련을 일정기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병역의무계획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보인다고 한다(안민권, 2019). 한편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또한 결국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채민정과 정효주(2018)에 따르면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자 간호대학생은 성역할 갈등이나 특히 병역의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김경하(2018a)는 사

회적지지, 성격,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인 진로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Betz, 1989).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수복·윤혜미, 2014).

성격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특성으로 사고와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별로 각기 다양한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생애를 통해 형성되어 가고 일정한 행동 반응 양식을 나타낸다(배경의, 2019). 성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연구 결과는 성격이 성실할수록, 개방적일수록, 외향적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미리·김봉환, 2015). 특히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성향이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문지영, 2019).

진로준비행동과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배성아·성소연; 2016; 이정선·김경아, 2012).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감에 영향을 주어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장태정, 2014). 셀프리더십은 Manz와 Sims(1995)가 정의한 대로 개인이 과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 주도과 자기 동기부여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는 개인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된 인지적 및 행동적 전략을 의미한다(김경하, 2018a).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으며(김경하, 2018a),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두 변인 간 정적상관 및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수복·윤혜미, 2014; 황지영·박재황, 20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 말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진로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공교과에 대한 만족도와 간호직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또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등은 간호대학생의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킬 수 요인이 될 수 있다. 졸업 후 취업은 다른 전공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취업후 이직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에 재학 중일 때부터 철저히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간호직이라는 현실은 준비되어 있으나 스스로 간호직무를 수행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간호직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이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2. 전공만족도

만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함’이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대학에서의 전공과 결합된 ‘전공만족도’는 결국 대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마음에 흡족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전

공만족도라는 말을 조금 더 추적하면 삶의 만족에서 출발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전공 혹은 학과의 만족은 현재 대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곧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 Shin과 Johnson(1978)은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는 ‘기준 비교 접근법’으로 설명한다. 그는 삶의 만족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결국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들이 자신의 기준과 비교하여 일치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삶의 만족도는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한예정, 2014). Veenhoven(1991)은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두 가지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이 달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여기서 감정적 측면은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운 정도이고, 인지적 측면은 자신의 욕망이 달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정도를 뜻한다(하혜숙, 2000; 재인용). 삶의 만족은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행복은 삶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평가로써 포괄적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황은희 · 김건희, 2017).

전공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서 그 범위를 개인의 학업, 즉 선택한 전공과 관련하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내부적으로 해당 전공의 구성원인 교수-학생, 그리고 외부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공선택은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나 적성, 흥미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부모 또는 교사, 친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그들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한예정, 2014).

전공만족도는 Veenhoven(1991)의 삶의 질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여 정리하면 감정적 측면에서의 즐거움과 인지적 측면에서의 성취의 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하혜숙(2000)은 전공만족도를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이해한다. 전공 교과를 배우면서 자신의 욕구수준이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이동재, 2004; 오은진 · 공정현, 2017). 김미경(2001)은 전공만족도의 개념을 ‘학교생활만족도’라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하혜숙(2000)과 김미경(2001)의 이러한 정의는 Veenhoven(1991)의 삶의 질에 대한 정의 중 전자는 인지적 측면을, 후자는 감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백정희(2007)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전공교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결정한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수준 및 개인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사람들에 의한 평가 정도라고 할 수 있다(강경숙 · 고영숙, 2016); 문미영 · 황선영, 2016. 이와 같은 개념을 정리하면 전공만족도란 대학생 개인이 자신이 선택하고 속한 학과의 전공 속에서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등 감정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한예정, 2014).

전공에 대한 현실 인식은 간호학이 전통적으로 여학생 중심의 학과 인식

이 강하여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성 고정관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영향은 최근에 입학생이 증가한 남학생의 전공만족에 지장을 줄 수 있다(임경민 외, 2017).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비효율적인 직무수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은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유진·김윤수, 2017); 최현주, 2017.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적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린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간호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정영미, 2018). 즉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이라는 자신의 전공에 스스로 만족하는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하며, 또한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충실한 대학생이 진로준비행동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채민정·정효주, 2017).

결국 전공만족도는 진학과 취업활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이러한 학습과정에 있어 학습행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고자 하는 동인이 되는 것이 학습동기로써 학습효과에 만족감을 갖도록 한다(Brophy, 1987; 임정혜, 2014).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충실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으며, 어느 특정 분야의 적성에 뛰어난 학생은 관련 분야의 교과목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진로적응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정영미, 2018).

간호대학에 입학한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전공을 통한 진로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간호대학생

들의 학습에 대한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의 중요성은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진로가 대부분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의 측면만이 아닌 간호사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전공만족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셀프리더십

1980년대부터 조직구성원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가치관이 변화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자기 관리(self-management)의 확대로 내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의 일체로서 자신으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인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윤미진 · 권영채, 2018).

셀프리더십의 개념이 사용된 것은 Manz(1986)에 의해서이다. Manz는 셀프리더십을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영향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행동적 · 인지적인 전략을 통해 스스로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으로 정의하였다(이동휘, 2017). 이는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뜻한다(최지연, 2016). 이 개념을 발전하여 Manz와 Sims(1997)는 셀프

리더십을 “개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자문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한 탐구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내적 동기와 자기 행동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과정”으로 말할 수 있다(김원경, 2013). 셀프리더십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이선영 외, 2019).

셀프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과 달리 스스로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스스로 반성하거나 처벌을 하는 등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볼 때 리더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하여 성장되며, 모든 사람들은 학습을 통하여 셀프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최지연, 2016). 셀프리더십의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셀프’라고 하는 ‘자아’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인간 내부의 기본적인 성향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학습에 의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나 유능한 셀프리더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셀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김미선, 2005; 최지연, 2016).

Houghton & Neck(2002)는 셀프리더십의 구성 요소로 의사결정시 주변의 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행동중심적 전략, 일에서 보람을 찾아 자기 결정감과 유능감을 주는 자연적 보상 전략, 생각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수정하고 확립하는 건설적 사고전략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김자선, 2019). 행동중심적 전략은 행동지향적 전략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통제이론에 근거를 두고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적 보상전략은 내재적 동기부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나 활동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아 유능감과 자기결정감을 증가시켜 내적인 보상을 이끌어 낸다. 건설적 사고전략은 인지적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존재라는 가정 하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수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만족한다는 자연적 보상에 따르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김원경, 2013; 이규영, 2016).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통제위’(locus of control)이다. 통제위는 1957년 미국의 Phares에 의해 처음 연구되었으며, Rotter(1966)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었다. Rotter는 자신의 행동 결과가 자신에 의한 노력이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제위를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행동 결과가 행운이나 기회, 운명, 타인의 힘 등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외적 통제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다(최지연, 2016). 둘째, 창의성(creativity)이다. 창의성은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김두리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은 창의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이다. 사회적 지지는 주변 환경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차원적인 도움과 지원을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선영 외(2019)에 따르면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타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상대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다(윤미진 · 권영채, 2018). 특히 간호직을 수행함에 있어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Kron(1981)은 “의사소통의 기본 목적은 사람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롭고 생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실무현장에서 진실한 자세로 의사소통하면서 대상자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그 안에서 목표달성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최지연, 2016). 윤미진과 권영채(2018)에 따르면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이다. 원래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 발전한 것이다. 개인의 학업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학습과제를 기대하거나 목표한 수준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학습자의 지각된 신념이라 할 수 있다(최지연, 2016).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특히 간호대학생의 학업 상황에서 과제실행이나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권진희·최봉실, 2020). 이운신 외(2014)에 따르면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셀프리더십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의 탐색뿐만 아니라 그것의 효율성에 대한 과정도 탐색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위를 지배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 관리 능력은 최근 리더십 연구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셀프리더십과 관점을 같이 한다(민순 외, 20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셀프리더십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셀프리더십의 함양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박민아(2009)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유도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민순 외(2010)에 따르면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 프로그램 실행 전과 비교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희망과 행복에 미치는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장래 간호사로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로서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간호 현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기조절능력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셀프리더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능하고 역량 있는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 시절부터 스스로 자기조절능력을 갖추어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도와주는 셀프리더십의 교육이 필요하다.

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간호를 무엇인지를 뜻하는 간호관에 직업의 의미를 결합시킨 개념이다(Hampton & Hampton, 2004; 이아람, 2018). 이렇게 볼 때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 활동 과정과 직업 의식적인 견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임세미, 2020). 또한 직업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와 간호사의 활동이나 그 직분에 대한 포괄적인 신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허영미, 2017). 이는 간호의 가치인 이념, 대상자, 본질,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가치관과 직결된다(조결자·송미령, 1997). 즉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과정,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이며, 이는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들을

제공하는 것이다(Weis & Schank, 2000).

간호사의 활동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은 자가 활동하는 전문직이다. 기능으로서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 가지는 사고나 행동 그리고 가치와 신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결자와 송미령(1997)에 따르면 간호는 간호사 개인이 전문직업으로서 간호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한 간호 정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간호사 개개인의 사고나 행동에 있어 전문인다운 모습을 드러낼 가치관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전문직 간호사로서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모든 전문직은 사회적 기능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과학적 지식체를 확립하고, 각각의 고유하고 독특한 지식체를 요구하며, 연구를 통해 증진시키고 발전시킨다. 어떤 직업관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직업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직업에 대한 열정이 결정되며, 직무수행 능력과 발전에 영향을 준다. 특히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을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태도와 신념, 그리고 지각을 포함하는 전문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호사라는 전문직업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다(백미희, 2020; 윤은자 등, 2005).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가 가지는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정립된 경우 간호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며, 직무에 대한 만족감으로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간호사 본인에게는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간호조직에는 숙련된 경력간호사를 유지하고 확보함으로써 조직 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간호전문직관이 왜 중요한지를 의미하며 간호전문직관의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강향숙, 2017; 김명희, 2008; 김미란, 2008; 함연숙·김화순, 2012).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발전은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행위를 제공하고 이러한 간호에 대해 직무 만족을 얻으므로, 대중으로부터 간호 전문직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하게 정립될 경우 간호의 효율성, 직무만족감, 자기효능감은 높아진다(Hallin & Danielson, 2008; 윤지영, 2016).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양질의 간호제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 간호사의 사회적 위치 확립 및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영미·윤은자, 2007; 양승경·정미라, 2016).

윤은자 등(2005)에 따르면 간호전문직관은 5개 측면으로 구성된다.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화 요인, 전문적 이미지, 사고와 개념, 자아개념 및 행위의 측면이다. 이는 크게 인식과정과 행동과정으로 구분된다. 인식과정은 사회화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사고와 신념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형성된 사고와 신념이 근간이 되어 전문적 자아개념과 전문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사회 상호작용, 인지 및 정신작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간호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율성, 인간관계, 직업적 긍지,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손혜안, 2002). 한상숙, 김영희와 윤은경(2008)에 따르면 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을 들었다. 즉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조직에 대한 몰입이 더해져 간호 전문직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 때, 간호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간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행위가 또다시 간호사의 이미지와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박현정·오재우, 2014). 간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뿐 아니라 직업

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간호 학생 시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의 Emory 간호대학에서는 교육의 핵심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주량, 2019). 이처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이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며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 나가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확고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이는 긍정적인 직업관으로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전인희 · 조주연, 2017; 함연숙 · 김화순, 2012). 즉 간호대학을 다니는 동안 형성된 체계적이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되어서도 간호의 질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양승경 · 정미라, 2016).

한편 간호대 신입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입학 당시에는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전공교과를 탐색하면서 간호지식과 신념, 태도, 기술 등이 내면화 과정을 거치며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가 점차 변화되어 수용하게 된다(최정 · 하나선, 2009). 이는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사 이미지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함연숙 외, 2011). 따라서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오은진 · 강향숙, 2017; 이은경 · 지은주, 2016).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간호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전문직관이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실무 경력을 쌓으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다는 앞선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기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김경선, 2006; 정수현, 2007). 최근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와 전공만족 및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도 간호전문직관과 연관하여 진행되고 있다(이시라, 2011).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여러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인데 특히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고순희와 정복례(2004)의 연구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경(2013)은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음을 확인하였다. 류영옥과 고은(2015)은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간호대학에 진학하면서 간호직이라는 진로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학하기 전부터 간호직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하여도 이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간호직에 대한 이해와 직무 수행에 대한 내용은 진학 이후 전공교과의 학습과 간호실습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직무이해도는 발전되기 때문이다. 결국 간호대학생이 간호직에 대한 바른 이해는 향후 간호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간호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직무 수용 태도는 재학시절 전공교과에 대한 학습동기와 장래 간호사로서의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란 직업 활동을 포함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일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누구나 진로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행동적 측면의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있다. 여기서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김봉환·김계현, 1997; 문지영, 2019).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회인지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은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그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효능감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행동을 거쳐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고 보았다(장명희 외, 2020). 이러한 이유로 진로준비행동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 속의 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안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곽미선, 20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상황특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실제 내가 해 낼 수 있다는 효능감에 대한 기대와 행동을 통해 얻게 될 결과에 대한 기대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다. 기대감은 개인의 성향, 능력,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한 개인의 특성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을 매개로 해야만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Bandura의 기대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장명희 외, 2020; 채명옥, 2019). 이와 관련하여 Hackett과 Betz(1981)는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가 진로결정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숙정, 2012). 한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생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현혜순·김윤영, 2018). 결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

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확신성으로, 진로를 탐색하려는 의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고, 올바른 진로를 결정한 후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다(Taylor & Betz, 1983; 황은희 외, 2016).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로 목표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러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남석·고영주, 2020; 김유미 외, 2018; 안민권, 2019).

간호대학생이 간호학을 선택한 것은 직장 및 직무 수행 및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전공과 달리 간호학의 선택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이미 진로를 결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진로에 대한 바른 선택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정점숙 외, 2014).

간호대학에 입학함으로써 간호직에 대한 진로선택과 전공에 대한 가중되는 스트레스는 결국 간호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정점숙 외, 2014).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간호직에 종사하게 된 이후 업무와 역할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진로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진로결정을 성공적으로 하여 직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 중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간호대학생은 높은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안은경, 2018).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채명옥, 2019).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이들의 전공에 대한 적응 문제는 병역과 연계되어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자퇴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병역문제를 다수의 여학생이 있는 학과의 특성상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이질감과 병역의무 후에도 예비군 훈련 등으로 실습 및 수업에 불참하게 되어 취업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결국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병역과 연계된 현실 속에서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직무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안민권, 2019).

한편 김순희와 이선희(2015)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임상 현장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복은 삶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평가로써 포괄적 개념인 심리적 안녕감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의 하나가 자신의 일에 몰입된 상태 및 직업을 통한 만족감이다(고정옥, 2013). 따라서 이러한 직무 만족감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하고 확인시켜 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장래의 간호사로 인지하며 전공교과를 학습하고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선택은 곧 진로결정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간호학과를 선택하였다는 것과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

쩌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공교과를 학습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무엇보다 실습 등을 통해 겪는 심리적 상태는 간호사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신감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진로결정에 방해요인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향후 간호사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함양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6. 선행연구 고찰

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하다. 우선 전통적으로 간호직이 여성중심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남성 간호사들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채민정과 정효주(2017)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성역할 갈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채민정과 정효주(2018)에 따르면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문미영과 황선영(2016)은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성격강점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개인의 태도와 심리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인 성격강점을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공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오은진과 공정현(2017)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연구를 통해 감성지능은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에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김경하(2018b)는 진로준비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강화능력 프로그램과 코칭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서는 김영희(2013)는 진로능력 강화프로그램이 실시하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증가(3.44에서 3.65로)를 확인하였고 서영숙과 정주영(2016)은 진로코칭프로그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조은정(2020)은 간호대학생의 학생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4학년 205명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송효숙과 임소희(2017)에 따르면 전공만족도와 취업불안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추적할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임경민 외(2017)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가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간호전문직과 전공만족은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경과 정미라(2016)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강경숙과 고영숙(2016)은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임경민 외(2017)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남자 간호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공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박희숙 외(2019)에 따르면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은 간호전문직관과의 영향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명희 외(2020)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과 안성아(2017)는 40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심리적 안녕감,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각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주(2017)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및 진로준비행동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전공만족도가 간호 전문직관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결과를 추론하게 한다.

다.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변인들에 연구는 다양하다. 서가원과 문혜경(2018)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한주랑(2019)은 셀프리더십은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윤신 외(2014)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만족 등의 변인들 간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에서 이선영 외(2019)는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셀프리더십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윤미진과 권영채(2018)는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김두리 외(2020)는 간호대학생의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은 셀프리더십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에 대한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서 민순 외(2010)는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간호대학생들의 희망(실시 전 3.20, 실시 후 3.82)과 행복 점수(실시 전 3.53, 실시 후 4.15) 모두 상향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나타내었다.

김건희와 황은희(2016)의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송현영과 신소홍(2016)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은희와 김건희(2017)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해 김남석과 고영주(2020) 및 서가원과 문혜경(2018)의 연구는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 및 간호대학생 스스로의 희망과 행복 효과 등의 변인들 간에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관련 훈련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으며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등의 변인들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라.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권진희와 최봉실(2020)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허영미(2017)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셀프리더십이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오은진과 강향숙(2017)에 따르면 간호대 신입생은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세미(2020)는 간호대학생 4학년 14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상간호인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주랑(2019)은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은 사회적 책임에 유의

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연구를 박희숙 외(2019)에 따르면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은 간호전문직관과의 영향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경하(2018a)는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박희숙, 최동숙과 김효준(2019)은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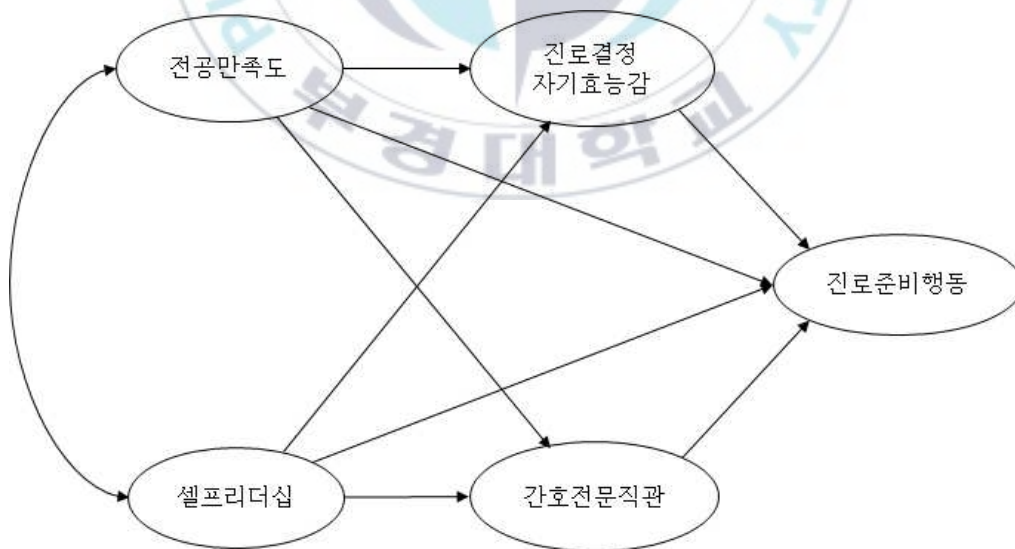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은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보여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함양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과 결국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이 앞으로 수행할 간호직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 함양, 무엇보다 간호사로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 등의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제시된 모든 변인들을 함께 다룬 연구는 없다. 다만 각 변인들의 영향이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변수 간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이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먼저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2~3년제 2개 대학(D대학과 B대학)과 4년제 대학 2개 대학(D대학과 D대학)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3년제 D대학에서 110명, B대학에서 200명, 4년제 대학 D대학에서 130명, D대학에서 60명 등 총 500명을 표집 하였다. 이 가운데 480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89.4%)가 남자(10.6%)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4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학년(28.5%), 2학년(18.5%), 4학년(6.9%) 순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잘 되어서'(35.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25.8%), '가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17.1%),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15.0%), 부모님(가족)의 권유 때문에'(6.95) 순이었다. 졸업 후 희망 근무지로는 대학병원(60.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차병원(21.9%), 보건소(7.1%), 외국간호사(6.9%), 보건교사(1.9%), 산업간호사(1.7%) 순이었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80)

변인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자	51	10.6
	여자	429	89.4
학년	1학년	221	46.0
	2학년	89	18.5
	3학년	137	28.5
	4학년	33	7.0
간호학과 지원 동기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124	25.8
	취업이 잘 되어서	169	35.2
	가치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82	17.1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72	15.0
	부모님(가족)의 권유 때문에	33	6.9
졸업 후 희망 근무지	대학병원	291	60.6
	2차병원	105	21.9
	보건소	34	7.0
	산업간호사	8	1.7
	보건교사	9	1.9
	외국간호사	33	6.9

3. 측정도구

가.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과 김계현(1995)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 16문항, 9점 척도를 이명숙(2003)이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활성화와 학내 진로 관련 상담센터들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하여 4점 척도로 수정·보완한 것을 5점 척도로 재구성한 권용준(2018)의 도구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보수집활동 6문항, 도구구비활동 5문항, 실천적노력 7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용준(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9$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검증되었기에 모든 문항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 문항구성

변인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출처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1, 2, 3, 8, 9, 17	6	김봉환, 김계현(1997), 이명숙(2003), 권용준(2018)
	도구구비활동	4, 5, 13, 14, 15	5	
	실천적노력	6, 7, 10, 11, 12, 16, 18	7	
전체			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의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은 3요인이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6개의 문항(3번, 4번, 5번, 13번, 17번, 18번)은 삭제하고 총 12개의 문항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5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3 이상이면 유의미한 변수로 간주한다(홍세희, 2008). 구형성 검정 결과는 KMO(Keiser-Meyer-Olkin) 값이 .852, Bartlett의 p값(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MO 값이 .8 이상이고, Bartlett의 p값(유의수준)이 .05 이하이면 사용된 변수와 case의 수가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하며, 변수들이 요인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현철, 2013).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791~.862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Cronbach's α 계수가 .6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Moss et al, 1998).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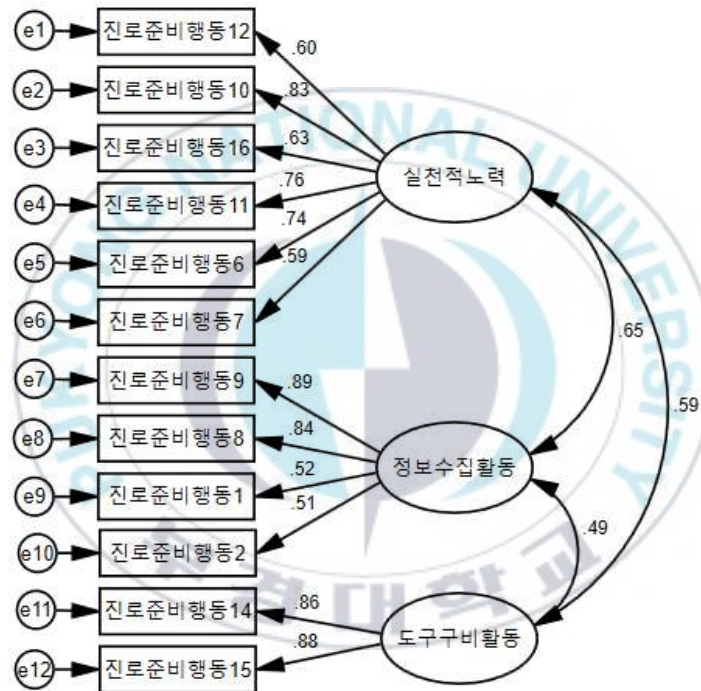
문항번호	실천적노력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Cronbach's α	
				하위요인	전체
진로준비 행동12	.822				
진로준비 행동10	.747	.362	.128		
진로준비 행동16	.725		.280	.847	
진로준비 행동11	.661	.342	.152		
진로준비 행동6	.650	.373	.225		
진로준비 행동7	.530	.293	.237		.882
진로준비 행동9	.253	.771	.246		
진로준비 행동8	.203	.760	.247	.791	
진로준비 행동1	.107	.730			
진로준비 행동2	.150	.700			
진로준비 행동14	.246	.171	.880		.862
진로준비 행동15	.251	.175	.876		
고유값	5.281	1.422	1.090		
분산비율(%)	44.009	11.849	9.085		
누적분산(%)	44.009	55.858	64.94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5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721.753
				자유도(유의확률)	66(.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요인 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요인 모형(모형2)의 경우 적합도는 1요인 모형(모형1)과 달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3개 요인에 대한 12개의 요인 적재치는 .510에서 .894로 나타났다. 3요인 모형은 [그림 III-2]와 같다.

<표 III-4>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모형1(1요인 모형)	590.016	50	.799	.734	.150
모형2(3요인 모형)	100.790	47	.980	.972	.049



[그림 III-2] 진로준비 행동 3요인 모형

나.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학과평가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하혜숙(1999)이 우리의 문화에 맞게 수정 개발한 34개 문항의 학과(학부)만족 도구 중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정명숙(201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공만족도의 구성요소로는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5문항), 전공에 대한 인식만족(7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정명숙(2018)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적은 6문항을 제거한 12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만족 5문항과 전공에 대한 인식만족 7문항,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명숙(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였기에 모든 문항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전공만족도 측정도구 문항구성

변인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출처
전공만족도	일반만족	Ⅲ. 1~5	5	하혜숙(1999)
	인식만족	Ⅲ. 6~12	7	정명숙(2014)
전체			12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의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은 2요인이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6번 문항은 일반만족 요인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5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구형성 검정 결과는 KMO 값이 .909, Bartlett의 p값(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33~.91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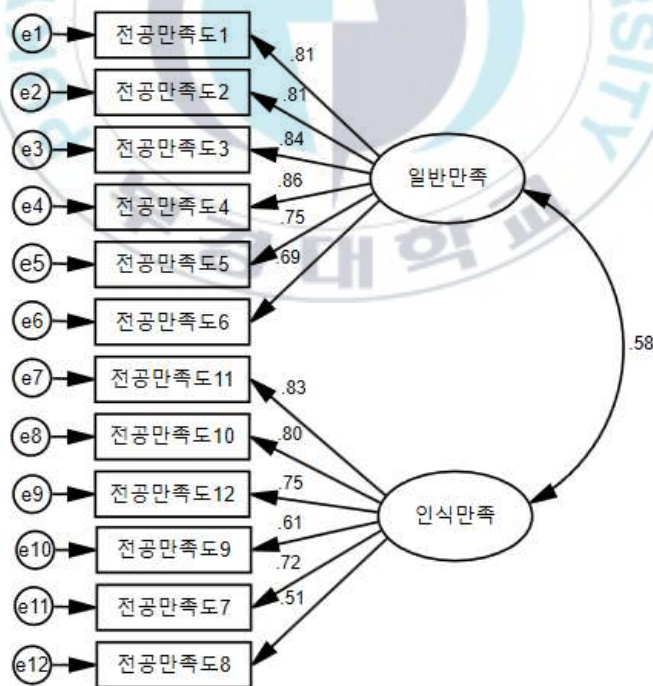
문항번호	일반만족	인식만족	Cronbach's α	
			하위요인	전체
전공만족도1	.860			
전공만족도2	.848			
전공만족도3	.839	.180	.911	
전공만족도4	.837	.249		
전공만족도5	.736	.348		
전공만족도6	.660	.386		.903
전공만족도11	.180	.831		
전공만족도10	.176	.821		
전공만족도12	.215	.764	.833	
전공만족도9		.723		
전공만족도7	.582	.586		
전공만족도8	.240	.572		
고유값	6.004	1.873		
분산비율(%)	50.029	15.605		
누적분산(%)	50.029	65.635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0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552.849	
		자유도(유의확률)	66(.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I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요인 모형(모형 1)의 적합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요인 모형(모형2)의 경우 적합도는 모형1과 달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2개 요인에 대한 12개의 요인 적재치는 .513에서 .863으로 나타났다. 2요인 모형은 [그림 III-3]과 같다.

<표 III-7> 전공만족도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모형1(1요인 모형)	650.741	41	.827	.721	.176
모형2(2요인 모형)	162.633	40	.965	.943	.080



[그림 III-3] 전공만족도 2요인 모형

다.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를 번안하고, 이를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상으로 타당화한 신용국(200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은 행동중심적전략(18문항), 자연적 보상전략(5문항), 건설적 사고전략(12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용국(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sim .87$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였기에 모든 문항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문항구성

변인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출처
행동중심적 전략	자기목표설정	IV. 1~5	5	Houghton & Neck(2002)
	자기보상	IV. 6~8	3	
	자기관찰	IV. 13~16	2	
	자기단서	IV. 17~18	4	
자기처벌	자기처벌	IV. 9~12	4	신용국(2009)
건설적 사고전략	자연적 보상	IV. 19~23	5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IV. 24~28	5	
	자기대화	IV. 29~31	3	
	신념과 가정분석	IV. 32~35	4	
전체			35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의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은 7요인이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3개의 문항(24번, 25번, 26번)은 삭제하고 총 32개의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동중심적 전략 하위변인 중 자기단서와 자기처벌은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자기단서 및 처벌’로 명명하였으며, 건설적 전략 사고의 하위변인 중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와 자기대화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성공적 수행 상상 및 자기 대화’로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은 .5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구형성 검정 결과는 KMO 값이 .934, Bartlett의 p값(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16~.879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II-9>와 같다.

<표 III-9>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번호	자기 목표 설정	자연적 보상	자기 관찰 및 단서	성공적 수행 상 자기 대화	자기 차별	신념과 가정 분석	자기 보상	Cronbach's α	
								하위 요인	전체
셀프리더십1	.787	.124	.240	.105		.108	.181		
셀프리더십3	.773	.102	.174	.197	.108		.210		
셀프리더십4	.720	.312	.236	.190		.107	.116	.879	
셀프리더십2	.682	.317	.257	.118		.130	.145		
셀프리더십5	.542	.236	.221	.111	.133	.128	.272		
셀프리더십21	.203	.750		.186	.133	.205	.137		
셀프리더십23	.123	.710	.188	.223			.201		
셀프리더십19	.279	.685	.259	.174		.146		.861	
셀프리더십22	.139	.678	.273	.156		.185			
셀프리더십20	.354	.561	.174	.322	.107	.117	.137		
셀프리더십17	.178	.105	.704		.104	.182	.202		
셀프리더십18	.251	.174	.701	.126		.107	.161		
셀프리더십14	.212		.658	.161	.221	.214		.861	
셀프리더십16	.278	.274	.643	.213	.145	.105	.164		
셀프리더십13	.191	.288	.556	.214	.399				.941
셀프리더십15	.207	.364	.498	.135	.168	.198	.141		
셀프리더십30	.145	.186	.172	.813		.152	.175		
셀프리더십29	.132	.136	.256	.769			.196		
셀프리더십31		.154		.759		.255		.861	
셀프리더십27	.238	.282		.591		.254	.131		
셀프리더십28	.176	.252	.255	.500		.376			
셀프리더십10	.126		.109		.844				
셀프리더십11		.122	.158		.828			.858	
셀프리더십12			.191		.824				
셀프리더십9		.221			.783		.114		
셀프리더십33	.114	.196	.134	.225		.785	.210		
셀프리더십35		.167	.294	.206		.758			
셀프리더십34	.216	.137	.248	.304		.705	.133	.816	
셀프리더십32	.136	.286	-.103	.460		.489			
셀프리더십7	.210	.148				.141	.832		
셀프리더십8	.198	.226	.265	.189			.747	.829	
셀프리더십6	.300		.244	.132		.104	.711		
고유값	11.962	2.891	2.124	1.486	1.176	1.110	1.037		
분산비율(%)	37.383	9.035	6.637	4.643	3.676	3.470	3.240		
누적분산(%)	37.383	46.418	53.055	57.697	61.373	64.843	68.08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3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8991.509	
								자유도(유의확률)	496(.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상위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유값 1 이상의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은 1요인으로 나타나 기존의 3가지 요인에 따라 요인수를 3개로 고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6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구형성 검정 결과는 KMO값이 .860, Bartlett의 p값(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10~.825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2차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2차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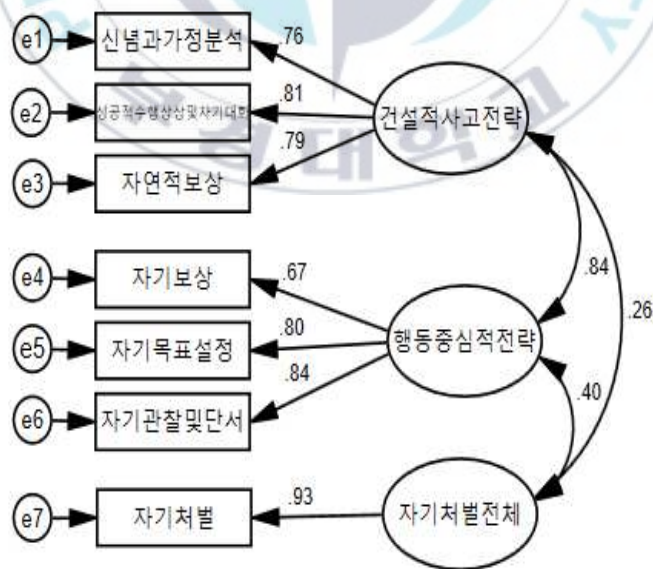
문항번호	건설적사고 전략	행동중심적 전략	자기처벌	Cronbach's α	
				하위요인	전체
신념과가정분석	.877	.199			
성공적수행상상 및자기대화	.852	.285		.825	
자연적보상	.631	.497	.198		
자기보상	.177	.874			.841
자기목표설정	.354	.783	.151	.810	
자기관찰및단서	.419	.639	.410		
자기처벌			.972		
고유값	3.851	.979	.743		
분산비율(%)	55.021	13.981	10.608		
누적분산(%)	55.021	69.002	79.610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6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유의확률)	
				1498.579	
				21(.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요인 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만족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요인 모형(모형2)의 경우 적합도는 모형1보다 더 좋은 수준이었다. 자기처별은 단일지표로 사용하였는데 원래는 4개의 측정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들을 합산하여 단일지표로 만든 경우이므로 요인적재량을 신뢰도 계수와 표준편차의 곱으로 고정시켰다(배병렬, 2017). 3개 요인에 대한 7개의 요인 적재치는 .669에서 .926으로 나타났다. 3요인 모형은 [그림 III-4]와 같다.

<표 III-11>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모형1(1요인 모형)	43.477	12	.979	.963	.074
모형2(3요인 모형)	15.455	10	.996	.992	.034



[그림 III-4] 셀프리더십 3요인 모형

라.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윤은자, 권영미와 안옥희(2005)가 개발하여 정수현(2007)이 사용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29문항에서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18문항을 추출한 김명희(2008)의 도구를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의 구성요소로는 전문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희(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였기에 모든 문항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문항구성

변인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출처
간호전문직관	전문적 자아개념	II. 1~6	6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 정수현(2007) 김명희(2008)
	사회적 인식	II. 7~11	5	
	간호의 전문성	II. 12~14	3	
	간호계의 역할	II. 15~16	2	
	간호의 독자성	II. 17*~18*	2	
전체			18	

*역문항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와는 달리 고유값 1 이상의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은 4요인이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2개의 문항(2번, 11번)은 삭제하였고 또한 역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변인측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Barnette, 2000) 역문항인 17번과 18번도 삭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17번과 18번 문항이 있을 때 Cronbach's α 계수는 .808이었으나 17번과 18번 문항을 제거한 후 Cronbach's α 계수는 .867이었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값 1 이상의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은 3요인이었으므로 12번~16번까지 문항은 '간호의 전문성과 역할'로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은 .4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구형성 검정 결과는 KMO(Keiser-Meyer-Olkin) 값이 .868, Bartlett의 p값(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768~.854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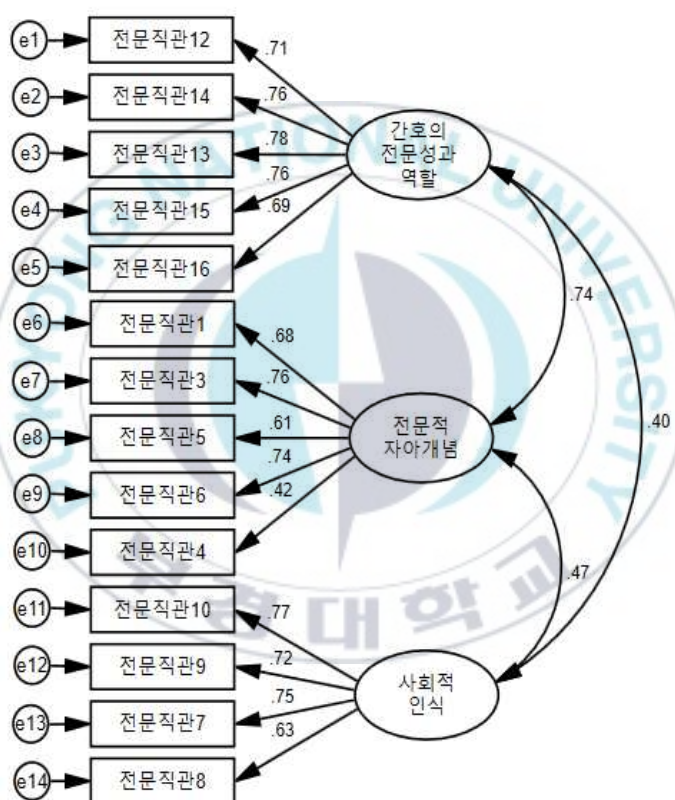
문항번호	간호의 전문성과 역할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Cronbach's α	
				하위요인	전체
간호전문직관12	.852				
간호전문직관14	.796	.177	.145		
간호전문직관13	.758	.348		.854	
간호전문직관15	.657	.359	.251		
간호전문직관16	.587	.301	.351		
간호전문직관1	.181	.776			
간호전문직관3	.257	.772	.119		
간호전문직관5		.703	.319	.768	.867
간호전문직관6	.391	.649	.146		
간호전문직관4	.255	.429			
간호전문직관10	.176		.807		
간호전문직관9		.154	.782		
간호전문직관7	.113	.198	.777	.807	
간호전문직관8	.210	.124	.677		
고유값	5.444	2.011	1.203		
분산비율(%)	38.887	14.362	8.594		
누적분산(%)	38.887	53.249	61.84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6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3361.314	
근사 카이제곱 자유도(유의확률)				120(.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요인 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요인 모형(모형2)의 경우 적합도는 모형1과 달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3개 요인에 대한 14개의 요인 적재치는 .422에서 .776으로 나타났다. 3요인 모형은 [그림 III-5]와 같다.

<표 III-14>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모형1(1요인 모형)	784.527	75	.740	.685	.141
모형2(3요인 모형)	260.401	72	.931	.913	.074



[그림 III-5] 간호전문직관 3요인 모형

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5개의 하위척도별로 5문항씩 선정하여 구성된 총 25문항의 단축형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Betz & Vuyten, 1997)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정리한 윤지온(2018)의 도구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자기평가(5문항), 정보수집(5문항), 목표설정(5문항), 계획수립(5문항), 문제해결(5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진(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윤지온(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였기에 모든 문항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요인별 문항 구성은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문항구성

변인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출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V. 1~5	5	Betz & Voyten(1997), 이은진(2001), 윤지온(2018)
	정보수집	V. 6~10	5	
	목표선택	V. 11~15	5	
	계획수립	V. 16~20	5	
	문제해결	V. 21~25	5	
전체			2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 이상의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4요인이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2개의 문항(4번, 5번)은 삭제하고 총 23개의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기평가 3문항(1번, 2번, 3번)과 계획수립 3문항(17번, 18번, 19번)이 같은 요인으로 추출되어 요인명을 ‘자기평가·계획수립’으로 명명하였다. 선행연구와 다르게 분류된 또 다른 3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들은 삭제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계획수립 요인이었던 16번 문항은 목표선택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문항 내용이 ‘나는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요구되는 교과과정들을 알 수 있다.’이므로 계획수립 요인보다는 목표선택 요인에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계획수립 요인이었던 20번 문항은 정보수집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문항 내용이 ‘나는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이므로 계획수립 요인보다는 정보수집 요인에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 요인이었던 25번 문항은 자기평가와 계획수립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문항 내용이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이므로 문제

해결 요인보다는 자기평가와 계획수립 요인에 가깝다고 판단되었다.

모든 문항은 .4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구형성 검정 결과는 KMO 값이 .945, Bartlett의 p값(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변수들이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11~.888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번호	목표선택	정보수집	자기평가 계획수립	문제해결	Cronbach's α	
					하위요인	전체
진로효능감14	.787	.169	.190	.223	.888	
진로효능감13	.766	.313	.190	.235		
진로효능감15	.718	.108	.232	.328		
진로효능감12	.707	.407	.197			
진로효능감11	.567	.249	.264	.171		
진로효능감16	.527	.451	.348	.116	.851	
진로효능감6	.240	.718	.167	.160		
진로효능감7		.711	.115	.335		
진로효능감9	.344	.666	.285			
진로효능감8	.237	.580	.383	.178		
진로효능감10	.434	.571	.200		.938	
진로효능감20	.365	.473	.462	.145		
진로효능감18	.142		.764	.207		
진로효능감19	.390	.319	.616	.207		
진로효능감2	.306	.144	.577	.111		
진로효능감1		.333	.549		.826	
진로효능감17	.424	.306	.499			
진로효능감3	.387	.290	.459	.169		
진로효능감25	.423	.161	.454	.342		
진로효능감21	.124			.810		
진로효능감24	.115	.141	.141	.782	.811	
진로효능감23	.237	.198	.163	.759		
진로효능감22	.395	.179	.404	.545		
고유값	10.221	1.739	1.084	1.011		
분산비율(%)	44.439	7.560	4.714	4.397		
누적분산(%)	44.439	51.999	56.713	61.110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4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6057.933	
					자유도(유의확률)	
					25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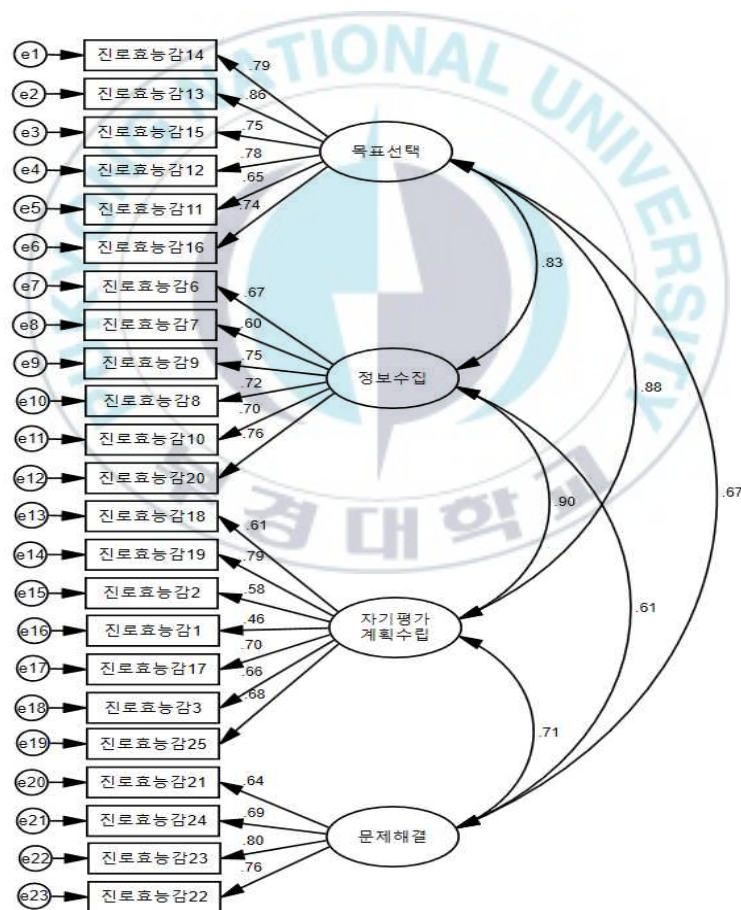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요인 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요인 모형(모형2)의 경우 적합도는 모형1과 달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4개 요

인에 대한 23개의 요인 적재치는 .462에서 .864으로 나타났다. 4요인 모형은 [그림 III-6]과 같다.

<표 III-1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모형1(1요인 모형)	1170.084	224	.840	.819	.094
모형2(4요인 모형)	701.136	218	.918	.905	.068



[그림 III-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요인 모형

4.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선정된 부산시내 4대 대학교의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협조를 받아 2019년 6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h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고 연구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관측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별 상관관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연구모형 타당성을 검증하고 잠재변수 간의 관계에서 직·간접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에 의해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1단계에서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2단계에서 구조회

귀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넷째, 구조회귀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유의성은 매개모형 평가 절차에 따라(홍세희, 2005; Roberson, Moye, & Locke, 1999),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에 대하여 적합도 지수의 차이를 확인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최종구조회귀모형으로 선정하고,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영석, 2010).

다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관측변인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검증 및 상관분석

가. 변인의 기술통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하기 전에 이를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검토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측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할 때, 관측변인들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에 위배된다면 모수치가 왜곡되어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변량 정규분포성은 각 관측변인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을 확인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할 때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의 크기로 평가하며,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고 보며, 첨도는 절대값 7 또는 절대값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고 본다(Kline,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통계적 모형 하의 각 관측변인들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1>과 같으며, 관측변인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은 관측변인들의 왜도(-.71~.34)와 첨도(-.42

~1.47)가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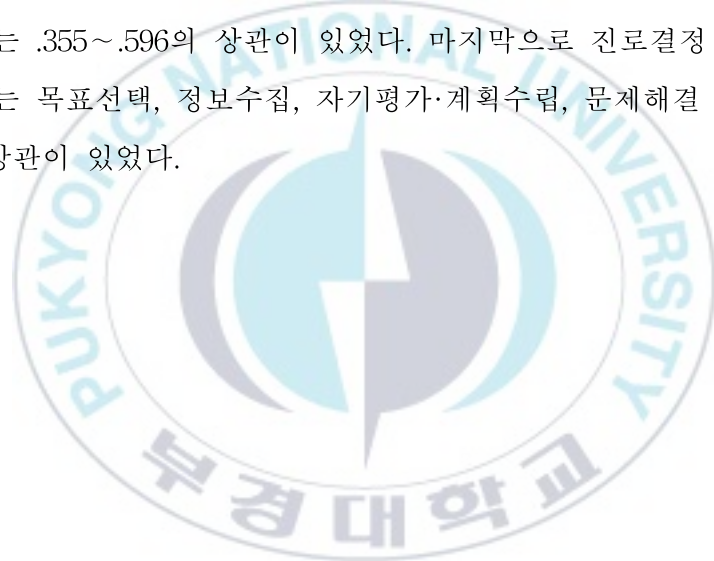
<표 IV-1> 변인의 기술통계(N=480)

관측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실천적노력	1.00	5.00	2.96	.85	.09	-.12
정보수집활동	1.00	5.00	3.68	.76	-.30	.02
도구구비활동	1.00	5.00	3.33	1.02	-.29	-.25
일반만족	1.00	5.00	3.85	.77	-.47	.19
인식만족	1.00	5.00	4.28	.57	-.71	1.47
건설적사고전략	1.72	5.00	3.62	.56	.29	.42
행동중심적전략	1.67	5.00	3.82	.60	.00	-.24
자기처벌	1.00	5.00	3.61	.85	-.45	.13
간호의전문성과역할	2.40	5.00	4.25	.59	-.51	-.42
전문적자아개념	2.20	5.00	4.14	.59	-.41	-.25
사회적인식	1.25	5.00	3.17	.84	.27	-.20
목표선택	1.50	5.00	3.77	.59	.05	.48
정보수집	2.00	5.00	3.70	.58	.34	.18
자기평가·계획수립	2.14	5.00	3.70	.53	.32	.46
문제해결	1.50	5.00	3.44	.69	.11	.25

나.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관측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측변인들 간은 모두 유의수준 .05 이상에서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을 실천적 노력, 정보수집활동, 도구구비활동 간에는 .410~.536의 상관이 있었고, 전공만족도를 구성하는 일반만족과 인식만족 간에는 .562의 상관이 있었고, 셀프리더십을 구성하는 건설적 사고전략, 행동중심적 사고전략, 자기차별 간에는 .223~.687의 상관이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을 구성하는 간호의 전문성과 역할, 전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에는 .355~.596의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목표선택, 정보수집, 자기평가·계획수립, 문제해결 간에는 .487~.737의 상관이 있었다.



<표 IV-2>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실천적 노력	1													
2) 정보수집 활동	.536***	1												
3) 도구구비 활동	.522***	.410***	1											
4) 일반만족	.297***	.352***	.297***	1										
5) 인식만족	.214***	.341***	.225***	.562***	1									
6) 건설적 사고 전략	.425***	.477***	.353***	.493***	.335***	1								
7) 행동중심적 전략	.338***	.509***	.344***	.647***	.447***	.687***	1							
8) 자기 처벌	.061	.227***	.101*	.109*	.074	.223***	.293***	1						
9) 간호의 전문성과 역할	.198***	.351***	.197***	.433***	.493***	.352***	.463***	.167***	1					
10) 전문적 자아 개념	.268***	.304***	.211***	.448***	.429***	.397***	.443***	.133**	.596***	1				
11) 사회적 인식	.325***	.186***	.128*	.329***	.258***	.338***	.314***	.080	.355***	.406***	1			
12) 목표 선택	.374***	.541***	.372***	.490***	.431***	.562***	.583***	.136**	.425***	.343***	.257***	1		
13) 정보수집	.436***	.623***	.378***	.383***	.421***	.533***	.537***	.163***	.381***	.321***	.254***	.734***	1	
14) 자기평가 계획 수립	.470***	.671***	.426***	.490***	.433***	.674***	.645***	.198***	.414***	.411***	.252***	.754***	.737***	1
15) 문제 해결	.363***	.359***	.269***	.257***	.210***	.485***	.397***	.083	.228***	.219***	.179***	.543***	.487***	.536***

* p<.05, ** p<.01, *** p<.001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 추정 가능성 확인절차(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 의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χ^2 검증을 하는 것과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쉽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도를 평가할 때 χ^2 검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적합도 지수들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Bollen & Long, 1993). 따라서 χ^2 값을 참고로 검토하고 SRMR, TLI, CFI 값과 RMSEA 값을 모형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모형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SRMR은 .05이하, TLI, CFI는 .90 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보고 있으며, RMSEA는 .06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10 이하는 보통의 적합도로 보고 있다(홍세희, 2001). 초기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SRMR은 .043, TLI는 .908, CFI는 .930, RMSEA는 .081로 나타나 RMSEA가 양호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SRMR	CFI	TLI	RMSEA
초기 측정모형	329.356	80	.043	.930	.908	.081

나. 초기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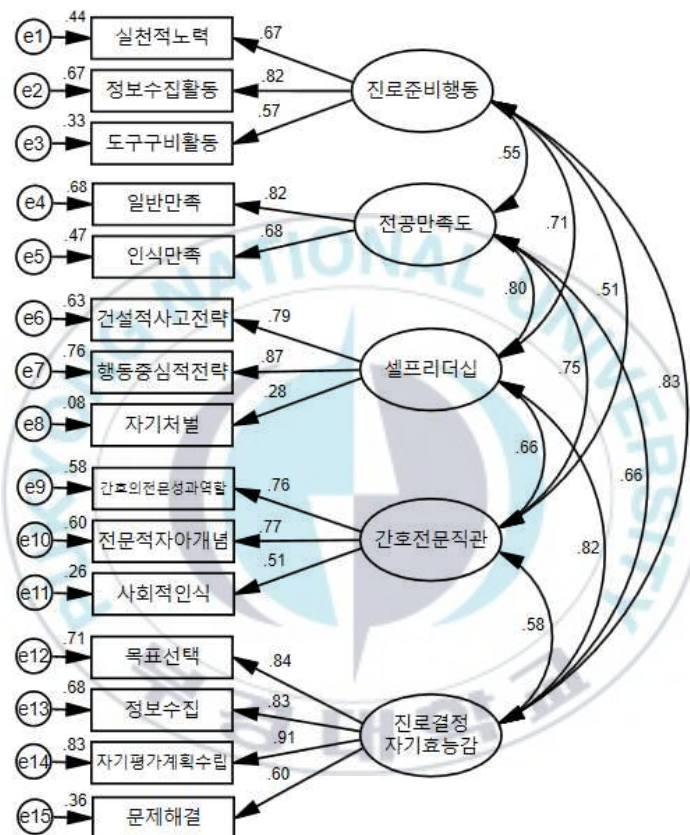
비표준화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C.R.값 기준)과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을 기준으로 초기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IV-4>와 같다. C.R.(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값은 비표준화 계수를 표준오차로 나눈 것으로 절대 값이 2.58 이상일 경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김대업, 2008).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비표준화 계수의 유의성과 비표준화 계수 관측변인들의 C.R. 값을 확인하였다. C.R. 값은 비표준화 계수를 표준오차로 나눈 것으로 관측변인들의 C.R. 값이 ± 1.96 보다 클 때에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홍세희, 2001). 분석결과, 모든 관측변인의 C.R. 값이 5.926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관측변인이 유의수준 .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잠재변인과 관측변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김계수(2010)에 의하면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이어야 연구모형 내에 포함시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분석결과, 잠재변인에 있어서 관측변인의 표준화 계수인 요인부하량은 셀프리더십의 관측변인인 자기처벌이 .284로 낮은 부하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관측변인의 요인부하량은 .506~.909로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초기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잠재변인	→	관측변인	<i>B</i>	β	<i>S.E.</i>	<i>C.R.</i>	<i>p</i>	SMC
진로준비 행동	→	실천적노력	1.000	.666				.444
진로준비 행동	→	정보수집 활동	1.100	.818	.079	13.923	.000	.670
진로준비 행동	→	도구구비 활동	1.021	.570	.095	10.697	.000	.325
전공만족도	→	일반만족	1.000	.822				.676
전공만족도	→	인식만족	.619	.683	.045	13.813	.000	.467
셀프리더십	→	건설적사고전략	1.000	.795				.632
셀프리더십	→	행동중심적전략	1.184	.872	.060	19.871	.000	.761
셀프리더십	→	자기처벌	.539	.284	.091	5.926	.000	.081
간호전문직관	→	간호의전문성과역할	1.000	.763				.582
간호전문직관	→	전문적자아개념	1.024	.774	.073	14.073	.000	.599
간호전문직관	→	사회적인식	.950	.506	.096	9.894	.000	.25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목표선택	1.000	.841				.70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정보수집	.965	.826	.044	21.983	.000	.6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자기평가계획수립	.968	.909	.038	25.427	.000	.82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문제해결	.828	.598	.059	14.060	.000	.358

또한 표준오차가 2.5를 초과하면 모형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있으나(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 관측변인의 표준 요인부하량의 표준오차가 .038 ~.096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에 대한 관측변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SMC 값을 확인하였다. SMC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셀프리더십의 관측변인 중 자기처벌의 SMC 값은 .081으로 매우 작은 값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MC 값이 .5 미만의 다소 낮은 관측변인들이 있지만 요인

부하량이나 C.R. 값이 기준치를 상회하므로 자기차별을 제외한 모든 관측변인을 모형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초기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그림은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초기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다.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초기 측정모형에서 셀프리더십의 관측변인 중 자기차별을 제외한 수정된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SRMR은 .042, TLI는 .910, CFI는 .933, RMSEA

는 .085로 나타나 RMSEA가 양호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수정지수(MI)를 이용하여 동일 잠재변수 내 오차분산 간 MI 값이 큰(11 이상) 측정변인 간 두 개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오차분산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SRMR은 .039, TLI는 .926, CFI는 .947, RMSEA는 .077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정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정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SRMR	CFI	TLI	RMSEA
수정 측정모형	246.650	65	.039	.947	.926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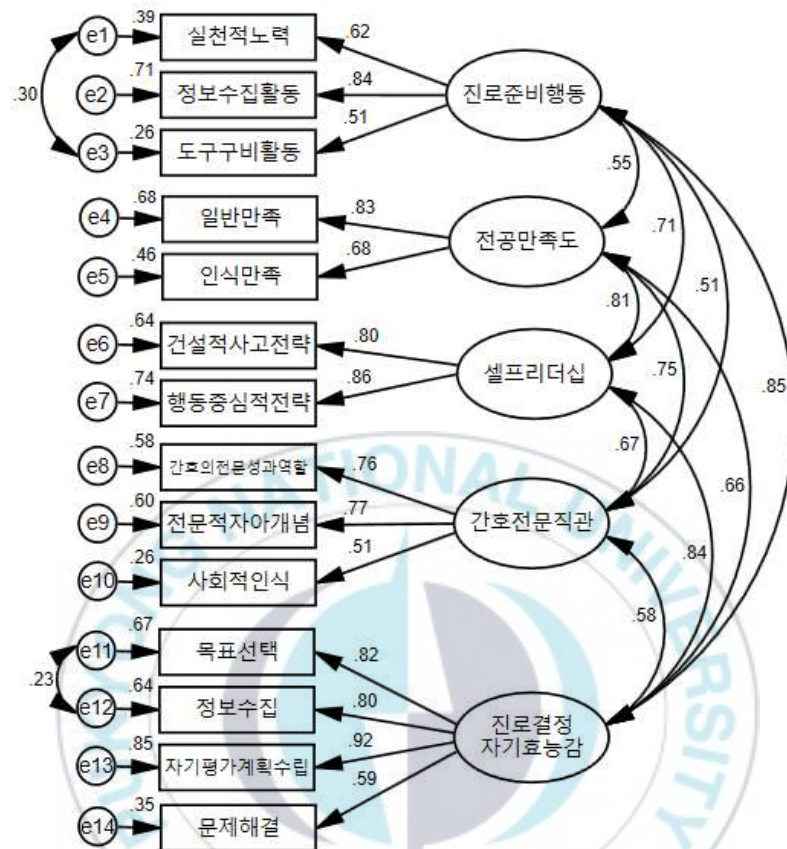
라. 수정된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수정된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모든 관측변인의 C.R. 값이 9.84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관측변인이 유의수준 .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잠재변인과 관측변인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잠재변인에 있어서 관측변인의 표준화 계수인 요인부하량은 .514~.925로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측변인의 표준 요인부하량의 표준오차는 .042~.094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에 대한 관측변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SMC 값을 확인한 결과, SMC 값이 .5 미만의 다소 낮은 관측변인들이 있지만 요인부하량이나 C.R. 값이 기준치를 상회하므로 모든 관측변인을 모형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수정된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

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IV-6>과 <그림 IV-2>와 같다.

<표 IV-6> 수정된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잠재변인	→	관측변인	<i>B</i>	β	<i>S.E.</i>	<i>C.R.</i>	<i>p</i>	SMC
진로준비행동	→	실천적노력	1.000	.624				.389
진로준비행동	→	정보수집활동	1.207	.842	.094	12.821	.000	.708
진로준비행동	→	도구구비활동	.982	.514	.088	11.208	.000	.264
전공만족도	→	일반만족	1.000	.825				.681
전공만족도	→	인식만족	.614	.681	.045	13.780	.000	.463
셀프리더십	→	건설적사고전략	1.000	.798				.636
셀프리더십	→	행동중심적전략	1.165	.861	.059	19.833	.000	.742
간호전문직관	→	간호의전문성과역할	1.000	.762				.581
간호전문직관	→	전문적자아개념	1.027	.775	.073	14.057	.000	.600
간호전문직관	→	사회적인식	.951	.506	.096	9.884	.000	.25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목표선택	1.000	.816				.66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정보수집	.964	.802	.042	23.043	.000	.64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자기평가계획수립	1.014	.925	.042	23.906	.000	.85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문제해결	.844	.592	.062	13.608	.000	.351



[그림 IV-2] 수정된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

3.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통해 초기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SRMR은 .042, TLI는 .911, CFI는 .934, RMSEA는 .085로 나타나 RMSEA가 양호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SRMR	CFI	TLI	RMSEA
초기 구조회귀모형	301.566	68	.042	.934	.911	.085

나.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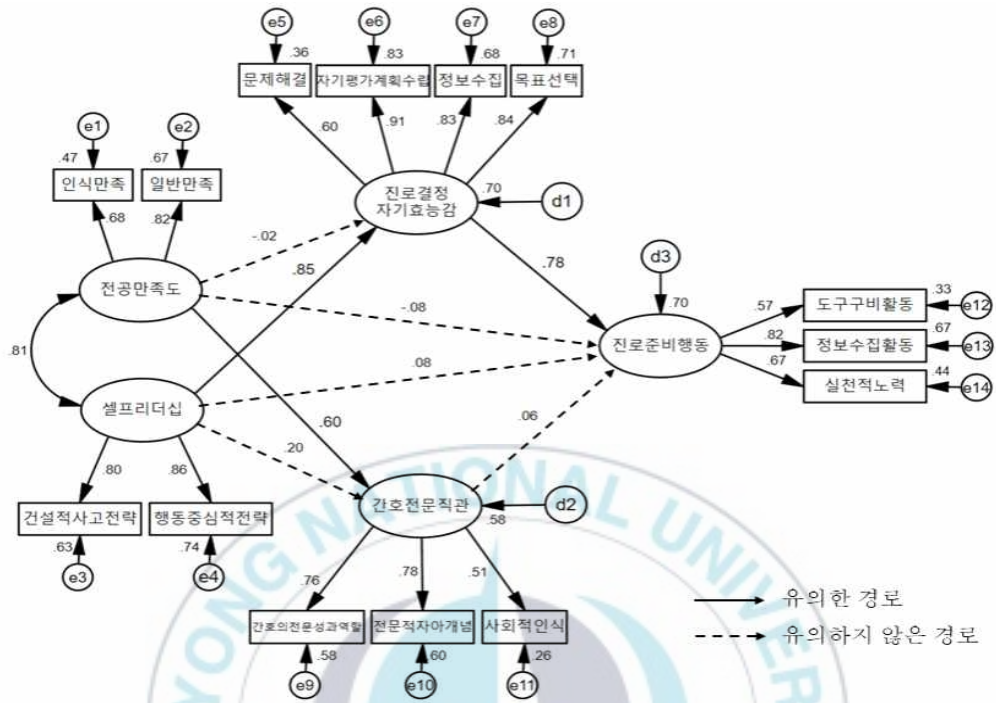
연구모형에 기초한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전공만족도에서 간호전문직관으로 가는 경로($p < .001$), 셀프리더십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p <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전공만족도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 셀프리더십에서 간호전문직관으로 가는 경로, 셀프리더십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 간호전문직관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IV-8>과 [그림 IV-3]과 같다.

<표 IV-8>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경로			<i>B</i>	β	<i>S.E.</i>	<i>C.R.</i>	<i>p</i>
전공만족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16	-.020	.076	-.212	.832
전공만족도	→	간호전문직관	.423	.595	.090	4.699	.000
전공만족도	→	진로준비행동	-.073	-.081	.108	-.677	.498
셀프리더십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954	.851	.115	8.281	.000
셀프리더십	→	간호전문직관	.196	.195	.114	1.724	.085
셀프리더십	→	진로준비행동	.108	.085	.179	.603	.5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888	.781	.119	7.470	.000
간호전문직관	→	진로준비행동	.079	.062	.105	.748	.454

*** $p < .001$



[그림 IV-3] 초기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4. 수정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 검증

가. 수정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초기 구조모형의 RMSEA는 .085로 나타나 RMSEA가 양호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MI를 이용하여 동일 잠재변수 내 오차분산 간 MI 값이 큰(11 이상) 측정변인 간 두 개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오차분산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SRMR은 .039, TLI는 .928, CFI는 .948, RMSEA는 .076으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정된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수정된 구조회귀모형을 최종 구조회귀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초기 구조회귀모형과 수정 회귀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구조회귀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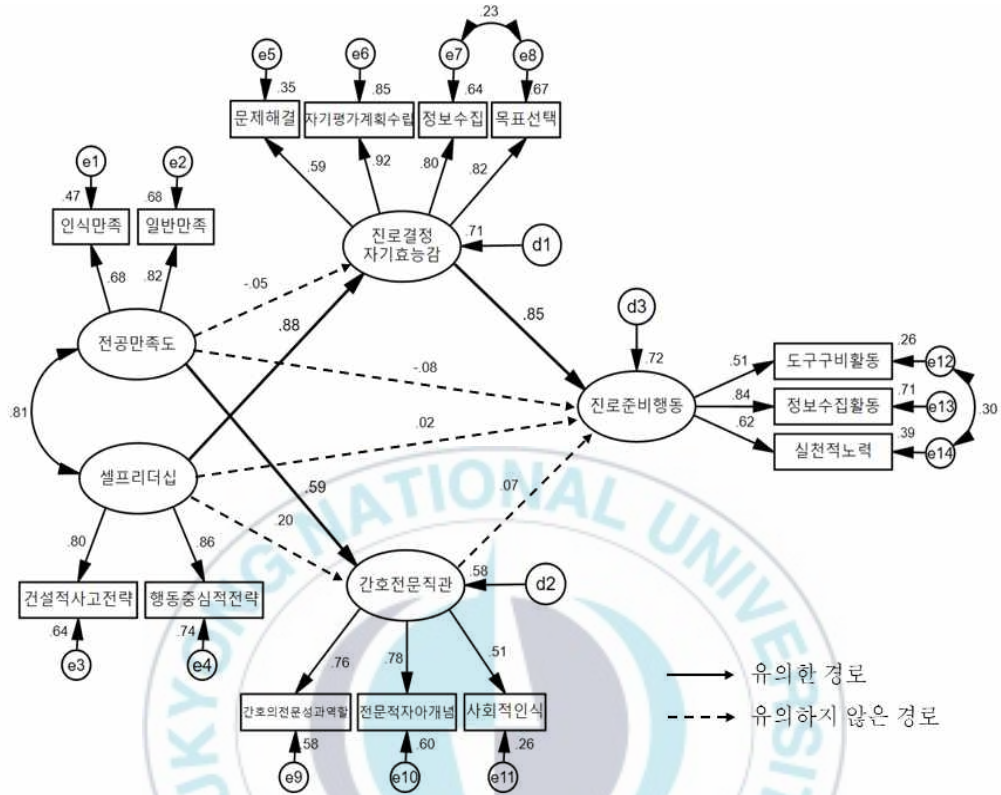
모형	χ^2	df	SRMR	CFI	TLI	RMSEA
초기 구조회귀모형	301.566	68	.042	.934	.911	.085
수정 구조회귀모형	250.374	66	.039	.948	.928	.076

나.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수정모형 내 경로계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총 3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 간호전문직관으로 가는 경로($\beta=.589$, $p<.001$), 셀프리더십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beta=.88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beta=.845$,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 전공만족도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 셀프리더십에서 간호전문직관으로 가는 경로, 셀프리더십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 간호전문직관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IV-10>과 [그림 IV-4]와 같다.

<표 IV-10>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i>B</i>	β	<i>S.E.</i>	<i>C.R.</i>	<i>p</i>
전공만족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35	-.045	.074	-.470	.638
전공만족도	→ 간호전문직관	.418	.589	.089	4.703	.000
전공만족도	→ 진로준비행동	-.067	-.079	.099	-.671	.502
셀프리더십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956	.881	.114	8.415	.000
셀프리더십	→ 간호전문직관	.201	.201	.112	1.799	.072
셀프리더십	→ 진로준비행동	.024	.021	.176	.139	.88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925	.845	.127	7.275	.000
간호전문직관	→ 진로준비행동	.082	.069	.097	.846	.397
전공만족도	→ 일반만족	1.000	.823			
전공만족도	→ 인식만족	.618	.683	.045	13.804	.000
셀프리더십	→ 건설적사고전략	1.000	.798			
셀프리더십	→ 행동중심적전략	1.161	.859	.059	19.837	.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목표선택	1.000	.8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정보수집	.964	.802	.042	23.042	.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자기평가계획수립	1.014	.925	.042	23.911	.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문제해결	.844	.593	.062	13.609	.000
간호전문직관	→ 간호의전문성과역할	1.000	.761			
간호전문직관	→ 전문적자아개념	1.030	.776	.073	14.042	.000
간호전문직관	→ 사회적인식	.955	.507	.096	9.901	.000
진로준비행동	→ 실천적노력	1.000	.624			
진로준비행동	→ 정보수집활동	1.207	.841	.094	12.814	.000
진로준비행동	→ 도구구비활동	.982	.513	.088	11.203	.000



[그림 IV-4] 최종 구조회귀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5. 최종 구조회귀모형에서 직·간접효과 검증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기 위하여 최종 구조회귀모형을 통해 밝혀진 변수들 간의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 절차에 따라서 원자료($n=480$)에서 무선 표

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경험적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가 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한편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으며, 특히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실시결과, 간접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영석, 2010).

<표 IV-11>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효과 분해표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셀프리더십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81***	.000	.8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845***	.000	.845***
셀프리더십 → 진로준비행동	.021	.758**	.779
전공만족도 → 간호전문직관	.589***	.000	.589***

*** $p < .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한 단편적 영향 관계 규명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에서 간호전문직관으로 가는 경로($\beta=.589$,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강경숙·고영숙, 2016; 이정인·정경순,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 교수들은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및 적용, 프로그램 등으로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표영희·윤미연, 2019)와 항공서비스학과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유정선, 2019)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전공의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확신성이라고 볼 때, 상대적으로 진로가 명확한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간호학을 선택한 것이 이미 직장 및 직무 수행 및 적응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 정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만족도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한승희,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만족도라는 연구결과(신혜빈 외, 2020)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셀프리더십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가는 경로($\beta=.88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가원과 문혜경(2018)의 연구결과, 그리고 문지영(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교과운영, 프로그램 실시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셀프리더십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명숙·천성문, 2007). 한편, 전공만족도 하 부요인 중 일반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태정과 문미경(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에서 간호전문직관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 1학년의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권진희와 최봉실(2020)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 학생은 46.0%이며, 2학년~4학년 학생이 5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영향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셀프리더십에서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식 관련학과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권나영·신형철,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비록 두 연구 대상의 전공은 다르지만 대학생이라 공통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셀프리더십은 영향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권나영과 신형철(2019)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진로결정을 할 때,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이종찬과 홍아정(2013), 서경화(2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

동 증진을 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명희 외(2020)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에 진로준비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장태정, 2014; 박희숙 외, 2019; 신혜빈 외, 2020)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모형의 4단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Hirschi, Herrmann과 Keller(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였다. Hirschi, Herrmann과 Keller(2015)의 연구에서는 적응준비와 적응자원, 적응준비와 적응결과, 적응자원과 적응반응, 적응자원과 적응결과는 입증되었으나, 적응준비와 적응반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응준비 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조적 과정을 거쳐 발현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가 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으며, 특히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식 관련학과 학생들의 셀프 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권나영·신형철, 2019), 실용음악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양은주(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

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게 되고 이를 통해 야만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 차원과 학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접근은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습행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고자 하고 궁극적으로 학습효과에 만족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 차원의 접근이다. 간호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이 교육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및 적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향상되면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가 가지는 간호전문직관이 향상될 것인데, 간호전문직관이 정립된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며, 직무에 대한 만족감으로 궁

극적으로 간호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 차원과 학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개인적 차원으로는 간호대학생은 스스로 장단기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행동변화를 하는 자기주도성을 습득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셀프리더십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관심 있는 직업을 찾고 그 직업에 대해 탐색하며 진로에 대해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자기신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 차원과 학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으며,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먼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생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진로 선택 과정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확신성 또한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간호직에 종사하게 된 이후 업무와 역할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진로결정에서의 자심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단편적으로 다룬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네 개 변인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관련 연구들과 연구방법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상관관계와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한 단편적 영향 관계 규명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관련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인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변인에서 요인적재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즉,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문항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되며, 추후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측정도구에 대한 더욱 면밀한 문항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이 부산광역시 소재 간호대학생에 한정되었다는 점과 여자 간호대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적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나 여학생 남학생의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려고 하여 모형의 간명성이 치중한 나머지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경숙·고영숙(2016).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의료커뮤니케이션**, 11(2), 179-189.
- 강향숙(2017).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관련 변수의 경로분석**.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현철(2013).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대한간호학회지**, 43(5), 587-594.
- 곽미선(2018).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불확실성, 자기개념명확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통찰력 간의 구조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151-177.
- 권나영·신형철(2019). 셀프리더십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외식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광경영학회**, 23(6), 587-606.
- 권영미·윤은자(2007).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간의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3(3), 285-292.
- 권용준(2018).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반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진희·최봉실(2020).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간호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5), 297-304.
- 권혁미(2014). **간호대학생의 행복유형과 학과만족도**.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정옥(2013).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장에서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50-261.
- 김건희 · 황은희(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436-445.
- 김경선(2006). 노인케어에 대한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유형 분석. **노인복지연구**, 32, 357-376.
- 김경하(2018a).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구조모형**.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하(2018b).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399-408.
- 김계수(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남석 · 고영주(2020).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8(1), 211-218.
- 김두리 · 임효남 · 김진일(2020).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3), 369-377.
- 김미경(2001).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2008).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간호업무수행과 재직의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희(2008).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

- 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9(1), 311-333.
- 김순희 · 이선희(2015).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7(1), 63-72.
- 김영희(2013).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817-828.
- 김원경(2013). **한국형 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및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자선(2019).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사회적 책임성,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문희 · 이미련(201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9(7), 465-477.
- 류영옥 · 고은(2015). 중소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22(1), 7-15.
- 민순 · 유경원 · 김혜숙(2010).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 학생들의 희망과 행복에 미치는 효과.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381-397.
- 문미영 · 황선영(2016). 간호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403-418.
- 문인오 · 이경완(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지영(2019).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 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11), 462-473.
- 박명숙·천성문(2007). 중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동서정신과학**, 10(1), 49-64.
- 박민아(200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오재우(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2(12), 417-426.
- 박희숙·최동숙·김효춘(2019).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5), 93-101.
- 배경의(2019). 성격발달수준,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7), 515-525.
- 배성아·성소연(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217-292.
- 백미희(2020). **간호 자율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백정희(2007). **대학 무용전공자의 신체 자신감과 학습태도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가원·문혜경(2018).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8(6), 233-242.
- 서경화(2016).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2(3), 121-138.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영숙·정추영(2016). 진로코칭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2), 138-145.
- 손혜안(2002). 연수교육이 신규간호사의 자아개념과 간호전문직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영·신소홍(2016).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628-640.
- 송효숙·임소희(2017).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4), 21-36.
- 신용국(2009). 셀프리더십 척도 타당화 연구: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빈·강지민·류경진·이소영(2020).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1249-1265.
- 심정신(2017).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 간의 관계.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7(11), 147-158.
- 안민권(2019). 남자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병역의무계획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1), 93-102.
- 안은경(2018).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융합적 관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6), 365-372.

양은주(2017).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왕희정 · 정선아 · 박효은 · 유혜숙 · 배연희 · 김지영(2016). 간호대학생의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9), 619-627.

양승경 · 정미라(2016).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613-629.

오은진 · 강향숙(2017). 간호대 신입생의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8(5), 745-760.

오은진 · 공정현(2017).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진로성숙태도,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인문사회** 21, 8(3), 245-259.

유수복 · 윤혜미(2014).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3), 405-421.

유정선(201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7(2), 3-27.

윤미진 · 권영채(20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의사소통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11), 433-440.

윤은자 · 권영미 · 안옥희(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5(6), 1091-1100.

윤지운(2018). **대학생의 가정 내 사회자본, 적극적 대처전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안성아(2017).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심리적 안녕감,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7(2), 809-821.
- 이경인·정경순(202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통합의학학회지**, 8(1), 77-86.
- 이규영(2016). 수도권지역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수준.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2(6), 233-253.
- 이동재(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 정체감, 성 고정 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희(2017).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국제보건간호역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02). **대학생의 진로 자기 효능감과 진로장애 지각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이정숙·김소연(201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1), 249-257.
- 이숙정(2012). 여대생의 심리적 욕구가 진로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여성연구**, 51(1), 103-130.
- 이시라(2011).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구·이제경(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 이아람(2018).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스트레스, 진로정체감과의 관계**.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옥·오향련(2019).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이 진

- 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7), 173-181.
- 이유진 · 김윤수(2017). 임상실습경험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
율성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3(4), 474-485.
- 이윤신 · 박성희 · 김종경(2014).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
관계, 대학생활만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229-240.
- 이은경 · 지은주(2016).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본
간호학회지**, 23(2), 126-135.
- 이은진(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선 · 김경아(201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
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9-39.
- 이종찬 · 홍아정(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1), 69-92.
- 임경민 · 김희영 · 박금자(2017).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가 남자 간호 대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0), 423-431.
- 임세미(2020).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융합정보논문지**,
19(5), 51-59.
- 임정혜(2014).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에 관한 경
로모형. **한국자료분석학회**, 16(4), 2273-2284.
- 윤지명(2017). **정신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명희 · 광미선 · 안주리(2020).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 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9(1), 1-18.
- 장욱 · 한승진(2018). OECD 통계로 본 한국 의료자원 현황과 주요 이슈. **HIRA 정책동향**, 12(4), 7-16.
- 장태정(201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태정 · 문미경(2016).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22(4), 344-352.
- 전미리 · 김봉환(2015).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45-461.
- 전인희 · 조주연(2017).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역할갈등, 전공만족도 비교. **다문화건강학회지**, 7(1), 51-60.
- 정명숙(2014).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구조모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수현(2007). **간호사의 DNR 관련 윤리적 태도와 간호 전문직관**.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미(2018).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적응 및 전공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8), 89-103.
- 정점숙 · 정미조 · 유일영(201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 27-36.
- 조결자 · 송미령(1997). 간호학생의 간호관 형성과 변화양상. **간호행정학회지**, 3(1), 17-35.
- 조은정(2020). 간호대학생의 학생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탄력성의 변화. **한국데이터정보**

과학지, 31(1), 85-96.

최지연(2016).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주(2017).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간호 전문직관의 조절 및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6), 68-77.

채민정 · 정효주(2018).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성역할 갈등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9), 395-404.

채명옥(2019). 간호대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디지털융복합연구**, 17(4), 229-238.

표영희 · 윤미연 (2019). 뷰티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9(10), 144-153.

하혜숙(1999).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대학통계/학과계열별 입학정원.

한상숙 · 김영희 · 윤은경(2008).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73-79.

한승희(2018).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45), 379-389.

한예정(2014).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수업참여도와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연구-조리 · 외식관**

- 련 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주랑(201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311-318.
- 함연숙·김화순·조인숙·임지영(2011). 졸업학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536-544.
- 함연숙·김화순(2012). 학제에 따른 졸업학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19(3), 363-373.
- 황완희·배경의(2017).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진로 의사결정유형이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8(3), 1237-1258.
- 황은희·김건희(2017).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양생이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457-467.
- 황은희·홍정민·신수진(2016).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18(3), 1729-1740.
- 황지영·박재황(2015).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4(5), 73-101.
- 허영미(2017).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혜순·김윤영(2018).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1), 29-38.
- 홍세희(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2001년 3월 워크숍 자료집.
- Barnette, J. J. (2000). Effects of stem and likert response option reversals on survey internal consistency: If you feel the need,

- there is a better alternative to using those negatively worded stem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0(3), 361-370.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7(1), 136-144.
- Bollen, K. A., & Long, J. S.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Publications.
- Brophy, J. E. (1987). Synthesis of research on strategies for motivating student to learn. *Educational Leadership*, 45(3), 40-48.
- Hallin, K., & Danielson, E. (2008).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1(1), 62-70.
- Hampton, G. M., & Hampton, D. L. (2004).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s,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ed Nurse - Midwiv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9), 1042-1053.
-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ivity, adaptability, and adapt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1-10.
- Houghton, J. D., & Neck, C. P.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Kline, R. B.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Kron T. (1981). **The management of patient care**. Philadelphia;

Saunders Co.

-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Manz, C. C., & Sims, JR. H. P. (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4), 18-35.
- Moss, S. C., Prosser, H., Costello, H., Simpson, N., Patel, P., Rowe, S., Turner, S., & Hatton, C. (199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AS-ADD Checklist for Detecting Disorders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2(2), 173-183.
- Rotter J. B. (199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014-105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i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Wies, D., & Schank, M. J. (2000).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 32(2), 201-204.

부 록

1. 진로준비행동 척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 및 분석결과는 연구를 위한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고 성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 06.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혜양인적자원개발학과

지도교수: 주 동 범

연구자: 김 명 희

연락처: 010-5252-7336

E-mail: vasc@hanmail.net

♣ 귀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설문에 참가하며, 귀하의 개인 신상에 관한 비밀보장을 전제조건으로 설문자료가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해당 부분에 ✓표를 해 주십시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I.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나이: 만 _____세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간호학과 지원 동기:

①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② 취업이 잘 되어서 ③ 가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④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⑤ 부모님(가족)의 권유 때문에

5. 졸업 후 희망 근무지:

① 대학병원 ② 2차병원 ③ 보건소

④ 산업간호사 ⑤ 보건교사 ⑥ 외국간호사

II. 다음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런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⑤	④	③	②	①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기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팸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⑤	④	③	②	①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8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⑤	④	③	②	①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상담센터나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 흥미 및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6	나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7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수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8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전공만족도 척도

Ⅲ. 다음은 전공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런편 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내 전공 학과의 교육 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2	내 전공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⑤	④	③	②	①
3	내 전공 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학과이다.	⑤	④	③	②	①
4	내 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5	내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6	전공 도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내 전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⑤	④	③	②	①
8	내 전공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9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전공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0	내 전공 학과를 졸업 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1	우리 부모님은 나의 전공 학과를 멋있게 생각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2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전공이 도움이된다.	⑤	④	③	②	①

3. 셀프리더십 척도

IV. 다음은 셀프리더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공부나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⑤	④	③	②	①
2	내가 세운 목표들을 엄두에 두면서 공부나 과제를 수행한다.	⑤	④	③	②	①
3	내 스스로 세운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구체적 목표들을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단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장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과제를 잘 해냈거나 시험을 잘 보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보상한다.	⑤	④	③	②	①
7	내가 한 일(혹은 공부)의 결과가 좋을 때 근사한 저녁, 영화관람, 쇼핑 등 특별한 이벤트를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보상한다.	⑤	④	③	②	①
8	내가 맡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평상시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한다.	⑤	④	③	②	①
9	내가 맡은 과제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나는 과제를 제대로 못했거나 시험을 못 보면 자책하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11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지 못할 때, 가끔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불쾌감을 드러내고 표현할 때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12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스스로가 실망스럽다.	⑤	④	③	②	①
13	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④	③	②	①
14	공부나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엄두에 두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15	나는 내가 학교나 학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16	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맡은 부분의 진행사항과 결과들을 꼼꼼히 점검한다.	⑤	④	③	②	①
17	내가 해야 할 일은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둔다.	⑤	④	③	②	①
18	내가 해야 할 일의 집중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노트, 리스트, 핸드폰, 메모장 등)을 사용한다.	⑤	④	③	②	①
19	나는 어떤 과제를 맡든지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구상한다.	⑤	④	③	②	①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	⑤	④	③	②	①
21	과제를 맡으면 마무리하는 것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	⑤	④	③	②	①
22	나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혹은 공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를 찾는데 관심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23	나는 학교나 학과와 관련된 활동 중 불만족스러운 측면보다는 즐거운 측면의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19)	⑤	④	③	②	①
24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먼저 상상해본다.	⑤	④	③	②	①
25	나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서 마음 속에 그려본다.	⑤	④	③	②	①
26	중요한 과제를 맡으면 내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상을 하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27	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⑤	④	③	②	①
28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실제로 해결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방법을 머릿속으로 시연해보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29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할(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때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30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잘 이겨내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31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과 대화할(소리를 내거나 생각으로) 때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32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나 혹시 내 신념이나 가정들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본다.	⑤	④	③	②	①
33	다른 사람들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내 생각이나 신념이 옳은지 솔직하고 분명하게 분석해본다.	⑤	④	③	②	①
34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이나 판단이 적절한지 평가해보려고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35	나는 평소에 내 기본 신념이나 가정들이 합리적인지를 생각해본다.	⑤	④	③	②	①

4. 간호전문직관 척도

V. 다음은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다	전혀 아니다
1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가진 성숙한 인격을 지닌다.	⑤	④	③	②	①
2	전문인으로써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전문지식을 획득한다.	⑤	④	③	②	①
3	간호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4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는 전문직 종사자이다.	⑤	④	③	②	①
5	간호사는 대중적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다.	⑤	④	③	②	①
6	간호사는 전문인으로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를 보여준다.	⑤	④	③	②	①
7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8	간호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9	간호사는 기관의 지지와 인식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적 보상과 적절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다.	⑤	④	③	②	①
10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에게 전문인으로 존경받는다.	⑤	④	③	②	①
11	간호사는 의사와 같이 의학계의 다른 전문인과 활약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여 준다	⑤	④	③	②	①
12	간호직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만이 행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직업이다.	⑤	④	③	②	①
13	간호는 전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이다.	⑤	④	③	②	①
14	간호는 간호사만이 행할 수 있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된다.	⑤	④	③	②	①
15	간호사는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과업수행과 성숙한 인격을 보여준다.	⑤	④	③	②	①

16	간호사는 직무수행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이다.	⑤	④	③	②	①
17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인처럼 간호의 전문성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18	간호직은 기관의 다른 전문인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	⑤	④	③	②	①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VI. 다음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직업선택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은 감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감수할 수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나는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8	나는 향후 10년간 직업에 대한 고용경향을 알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9	나는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연봉을 알아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나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1	나는 진로결정 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2	나는 선택 가능한 전공목록들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3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4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목록들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5	나는 선호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6	나는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요구되는 교과과정들을 알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7	나는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8	나는 이력서를 쓸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19	나는 취업면접과 관련되는 절차들을 다루어 나갈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0	나는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1	나는 처음 선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2	나는 선택한 전공과 관련해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3	나는 처음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전공이나 진로의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4	나는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5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